

조선·정통에너지·방산 ‘미소’... ETF 옥석 가리기 본격화

美 대선 도널드트럼프 당선 이후 ETF 수익률 톱5 대부분이 ‘조선’ ‘트럼프, 저렴한 에너지 사용 강조 화석연료 정책, 국내 조선에 긍정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그의 공약과 관련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주목한 정통에너지·전력·조선업종 관련 상품이 주목 받는 분위기다.

7일 ETF 체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 시장에서 수익률 ‘톱5’ 상위권에 오른 상품 대부분이 ‘조선’ 관련 ETF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조선TOP10은 이날 11.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레버리지를 포함한 국내 ETF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뒤이어 신한자산운용의 SOL조선TPO3플러스, HANARO Fn조선해운, KODEX K-친환경조선



ChatGPT에서 생성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으로 조선·원유·방산 관련 ETF가 각광 받는 모습.

해운액티브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에는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등과 전통에너지 관련 사업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이 ETF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삼정KPMG 측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강조했다”며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요 증

가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긍정적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 후 기대되는 섹터 중 조선주 다음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원유 관련 섹터다.

선거 유세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기조를 ‘녹색 속임수(Green New Hoax)’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원유 관련 ETF로는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 S&P 원유생산기업(합성H) 상품이 있으며, 7일 수익률 6.47%를 기록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20위권에 들지 못했던 상품이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톱5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전략석유 비축량을 확충한다’

는 공약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원유 관련 ETF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관련 ETF가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이미 방위산업 부분은 연초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트럼프의 당선 이후 더욱 큰 호재로 작용하는 섹터로 꼽힌다. 트럼프가 첫 집권을 했을 당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임기 4년 동안 평균 주가가 40% 이상 뛴 분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우주주’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NATO 회원국에 대해 방위비를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2%를 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기에 방산 ETF도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7일 ETF 체크 순위 기준으로도 수익률 상위 20권 안에 방산 관련 ETF만 4개가 이름을 올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新) 정부 트레이딩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수혜 분야는 방산·조선 업종”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3분기 호조 ‘1조 클럽’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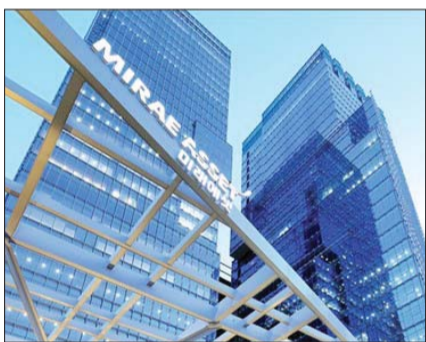
영업익 3708억 전년대비 114% 증가 매출 5조4488억, 누적영업익 9145억

미래에셋증권이 3분기 영업이익 3708억원을 달성하며 연내 ‘영업이익 1조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7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4.2%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4488억5600만원으로 19.2%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900억9700만원으로 277.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9145억원, 세전이익 8658억원, 순이익 6618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미국 연준의 4년6개월 만에 정책금리 0.5%p 인하라는 빅컷과 미국 대통령 선출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법인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다.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3분기 508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하며, 올 한 해만 1108억원의 누적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인도, 베트남 등 이머징 시장에서는 현지화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안정적인 성과를 시현했다. 홍콩, 뉴욕, 런던 등 선진국에서는 세일즈앤트레이딩(S&T)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자기자본이익률(ROE) 포함 전반적인 수익성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 전체 증권사 중 15위로 급성장하며 지난 10월

리테일 계좌수 200만개를 넘어섰다. 현지 증권사 웨어칸 인수가 연말에 완료되면 리테일 계좌수 약 500만개를 보유한 종합증권사로서 5년 내 인도 5위권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레이딩(Trading) 부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양호한 채권 실적을 바탕으로 전 분기 대비 19% 증가한 3407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공개(IPO) 주관 점유율 17% 이상을 차지했다.

연금, 해외주식 잔고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연금자산은 40조 원을 넘어섰고 해외주식 잔고는 3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 3.8%,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은 13.7%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내 다각화된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경상수익과 넥스트 스텝으로 도약을 앞둔 글로벌 비즈니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ELS 미상환 발행 잔액 전년대비 25% 급감

예탁결제원, 3분기 잔액 48조 집계

주거연계증권(ELS) 미상환 발행 잔액이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ELS 미상환 발행 잔액은 전년 동기(64조2468억원) 보다 25.1% 감소한 48조1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50조7457억원) 대비로는 5.1% 감소했다.

ELS 발행 금액은 9조4069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9228억원) 대비 5.2% 줄었다. 발행종목 수는 3116종목으로 전년 동기(3945종목) 대비 21% 감소한 반면, 전분기(2850종목)와 비교해서는 9.3% 늘었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 발행이 83.2%(7조8247억원), 사모 발행이 16.8%(1조5822억원)를 차지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국내외 지수) ELS가 5조6781억원으로 전체의 60.4%로 집계됐고, 국내외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는 3조4626억원으로 36.8%를 차지했다.

3분기 ELS 상환금액은 11조9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조9813억원) 대비 0.2%, 전분기(19조2989억원) 대비 38.1% 줄었다.

상환 유형별로는 만기·조기상환 금액이 각각 6조3229억원, 4조8216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52.9%, 40.3%를 차지했다. /원관희 기자 wkh@

‘TIGER 美S&P500 ETF’ 순자산 5조 돌파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대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하며 연초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5조2215억원이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가 순자산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현재 아시아에 상

장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추종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S&P500 ETF’는 나스닥100, 다우존스30과 함께 미국 3대 대표지수 중 하나인 S&P500 지수를 추종한다. S&P500 지수는 미국 전체 시가총액 약 80%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올해 미국 증시는 높아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업실적과 경제 지표

들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랠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 ‘TIGER 미국S&P500 ETF’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ETF로 나타났다. 올해만 약 1조3500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 올해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지난 6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0.1%를 기록 중이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초단기 채권’ 투자 공모펀드 출시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출시한다.

7일 공개된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는 한투운용이 선보이는 첫 번째 초단기 채권형 공모펀드다. ‘초단기 채권형 공모펀드’란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우량 단기채권을 담은 금리형 상품으로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수익이 누적되는 ‘파킹형 상품’이다. 또한 환매 신청 시 2영업일(T+1) 기준가로 2영업일에 지급(17시 이전 신청 기준)되어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게 환매주기가 짧아 환금성이 높다.

이 펀드의 주요 편입 자산은 안정성이 높은 ▲A-등급 이상의 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 등) ▲A1~A2등급의 기

업어음(CP 및 전단채) ▲현금성 자산(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 발행어음 등)이다. 해당 펀드는 가격 변동 최소화를 위해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는 0.15년 내외 수준으로 유지한다.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도 추구한다. 우선 종목선택 전략으로 동일 등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분석해 높은 투자 메리트를 가진 채권을 선택한다. 한투증권 측은 “이자수익 추구 전략을 통해 만기가 짧고 YTM과 유동성이 높은 크레딧 채권을 선정해 보유이익을 극대화 한다”며 “환매조건부(Repo)매도를 활용해 펀드 총액의 50% 이내에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위험 관리 방안으로는 환매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펀드의 안전자산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